

폐결핵으로 오인된 단순 폐 호산구증

서울적십자병원 내과

*강병국 · 진대호 · 안태홍 · 이기조 · 박민범 · 박남선 · 조삼권 · 강석우 · 김은나 · 서상렬 · 한윤주 · 박재석

서론 : 호산구성 폐질환은 폐침윤 소견, 호흡기 증상과 더불어 호산구의 폐실질 침윤이나 말초혈액에서의 호산구증다증을 특징으로 한다. 임상증상이 거의 없고 일과성 폐침윤과 말초 호산구증다증을 동반한 단순 폐 호산구증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27세 남자환자가 직장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상 폐음영 이상소견 관찰되어 폐결핵 의심하에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특이사항 없었고 가족력에서도 별다른 점은 관찰되지 않았다. 내원당시 이학적 검사상 이상소견 없었으며 검사실 소견으로 생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소변검사 정상이었으며 말초 혈액 검사에서 총백혈구 $11,300\text{mm}^3$ 호산구 $3,200\text{mm}^3$ (32%) 보였다. 단순 흉부 촬영상 우상엽 부위에서 일정 크기의 폐실질 경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다. 1주일 후 다시 시행한 단순 흉부 촬영에서는 이전에 관찰되었던 우상엽 부위의 폐실질 경화 소견은 사라졌고 새로이 좌상엽과 중엽부위에 서로 다른 크기의 폐실질 경화 소견이 관찰되었다. 고해상도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 양 폐 상부에서 다양한 크기의 다발성 경화와 그 주위의 간유리질 음영을 관찰할 수 있었다. 폐기능 검사 정상 소견이었고 대변검사, 객담검사, 혈청검사, 피부반응검사에서 의미있는 **결과** 보이지 않았다. 환자는 임상증상 없이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중이다. 고찰 : 단순 폐 호산구증은 말초혈의 호산구 증다와 이동하는 일과성 폐침윤 특히 상부폐 말초부위에 침윤을 수반하지만 각각증상은 없고 있어도 가볍고 폐음영도 1개월 이내 소실한다. 원인과 병리기전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치료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으며 증상이 심하다면 부신피질호르몬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결핵도 약 10%에서 정도로 호산구 증다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관지 결핵과 동반된 기관기관지 골연골형성증 1예

전양대학교 병원 내과학교실

*권미혜 · 이고은 · 이정호 · 손지웅 · 최유진 · 나문준

기관기관지 골연골형성증은 기관과 기관지내로 돌출되어 나타나는 다발성 연골성 또는 골성 돌출 병변이 특징적인 비교적 드문 질환으로 원인과 발생기전은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 과거에는 주로 부검을 통해 발견되었으나 현재는 기관지 내시경 및 전산화 단층촬영의 발달로 점차 발견되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으며, 대개 양성경과를 취하나 유의한 기관 협착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저자들은 57세 여자환자에서 만성기침 및 객담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기관지 내시경과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조직검사를 통해 기관지 결핵을 동반한 기관기관지 골연골형성증으로 진단된 1례를 경험하여 보고한다. **증례** : 57세 여자 환자가 약 7개월전부터 시작된 경증의 호흡곤란, 기침 및 객담의 증상이 내원 20일전부터 악화되어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특이병력은 없었으며 흡연은 하지 않았다. 내원당시 문진상 기침 및 객담의 증상외에는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이학적 검진상 우폐야에서 천명음이 청진되었고 일반혈액 및 화학검사상 이상소견은 없었다. 흉부 X-선상 특이소견은 없었으나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상 양폐야에 공동을 동반한 소결절과 함께 우폐상야 및 우폐중야의 기관지 비후소견이 보였으며 기관벽의 석회화 결절 및 불규칙한 비후소견이 관찰되었다. 기관지경 검사상 우상 및 중엽 기관지에서 기관지 결핵이 의심되는 삼출성 병변이 보였으며 기관에 다수의 다양한 크기의 단단한 용기성 결절들이 관찰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병리학적으로 기관기관지 골연골형성증으로 확진되었다. 환자는 객담 및 기관지 세척검사상 결핵 양성 반응과 조직검사상 기관지 결핵으로 확진되어 결핵약복용 후 증상호전되어 퇴원하여 외래에서 추적관찰 중이다.